

[오피니언]

월/요/광/장

민혜숙



알버트 메라비안(Albert Mehrabian) 교수는 대화나 연설이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말의 내용이 7%, 목소리가 38%, 눈빛·표정·태도 등과 같은 몸짓언어가 55%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학설을 내놓았다. 이를바 '메라비안 법칙'이다.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엄마들은 '시험을 못 보는 것은 괜찮다'고 허락해 말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지만 정작 시험을 못 봤다고 작은 소리로 풀이 죽어 말하는 아이에게 '괜찮다'고 쌔슴하게 대꾸한 적은 없는가. 경멸하는 눈초리를 보면 적은 없었는지, 괜찮다고 말해 놓고도, 왜 남들은 잘하는데 너는 그 쉬운 문제를 틀렸느냐고 밀어붙이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본다. 말과 표정이 따로였던 많은 순간들을.

어떤 고등학생이 시험지를 받으면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고 고백했다. 시험을 못 보면 실망할 엄마 때문에 걱정이 된다.

힘든 세상, 따뜻한 말

그 엄마는 '내가 언제 뭐라고 하든?'하면서 항변했지만 아이는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엄마 얼굴에 죄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못 보면 말도 안 하잖아요.'라고 대꾸 했다. 필자가 10년 전에 소설 '서울대 시지푸스'를 썼던 때와 교육상황이 하나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 비로소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고 3인 아들이 얼마 전 기숙사를 나오겠다고 말했다. 아무리 달래도 집에서 다니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다. 잘못 하다간 아침 밥 해주기 싫어서 학교 기숙사에 맡겨 버려려는 엄마로 오해받기 심상이었다. 아이와 대화를 하던 중에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6월에 치른 평가원 모의고사는 어려웠다고 위안을 삼을 수 있었지만 7월 모의고사에서 다른 아이들은 성적을 회복했는데 본인의 성적만 더

들리면서 피었으나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으나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으나/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으나/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실망했던 아이의 얼굴이 다시 환해졌다. 시의 힘, 아니, 우리 인생의 깊은 곳을 성찰한 시인의 말에 동감한 것 같았다. 아이는 다시 한 번 도전을 해 보겠다고 용기를 냈다. 아이를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났다. 불안한 가운데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 취업을 위해 도서관에서 더위와 싸우는 학생들이, 일터에서 분투하는 남편들, 어려운 살림을 거들어 보겠다고 마트에서 식당에서 애쓰는 아내들, 그 누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고유가에 물가마저 급등하고 있는 요즘은 덥기는 왜 그렇게 더우지, 신경에 날이 선다. 힘들 때 일수록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할 것이다. 말만 하지 말고 상냥한 목소리로 따뜻한 표정으로 피자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보듬어야 할 것이다.

<소설가·호남신학대 겸임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세상, 따뜻한 말

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어 몰입교육이다 뛰어해서 더 심해졌다고나 할까. 대한민국 교육의 열풍이 부는 분단에 살고 있는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기말고사에서 국어 33문제 중에 3개 틀렸는데, 과목 석차가 405명 중에서 287등이야. 어떻게 하지?" 수학기를 통해서도 밤을 동동 구르는 동생의 얼굴이 보이는 듯 했다. 3개 틀린 것 때문에 30문제나 맞춘 조카의 노력이 물기울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 애도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30개나 정답을 맞힐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노력을

떨어졌다는 것이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얼마나 참담하겠는가. 세상에는 노력한 대로 순간순간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일도 많다고, 그래도 끝까지 우직하게 가다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너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위로를 해도 소죽은 넋이었다. 결국 아빠까지 동원되어 도종환 시인의 시까지 읊게 되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이지현



교직은 그리 매력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수도 냉철하지 못하고 지위도 높지 않을뿐더러 날마다 학생들과 쌔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이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방학 때문이다. 교직의 매력은 이것이다. 방학 동안에 그동안 힘든 수업과 학생지도 때문에 쌓인 피로도 풀고 소진된 힘도 회복할 수 있다. 또 한 학기를 정리하고 다음 학기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요즘은 교사에게는 방학이 없어지고 있다. 유능한 교사일수록 방학이 되면 더 바쁘다. 교사에 대한 평가는

교직이 생기기 마련이다. 교사의 과도한 노동은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힘과 시간이 다른 일을 위해 빼져 나가게 하며 자연히 학생 교육을 소홀하게 만든다.

교사들은 쉬어야 할 때 왜 그렇게 바빠야 하는가? 승진을 위한 교사 평가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평교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승진은 지상명령이나 다름없다. 이런 장기 전략에서 학위 취득과 연수 축적이 바로 승진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이로 인해 교사의 시간은 빼듯해지고 자신이 가르

교사들에게 편안한 휴가를

강화되면서 대다수 교사들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연수나 대학원을 다닌다. 라 쉴 틈이 없다. 또 방학 중에 학생이나 동료 교사를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거나 힘든 노동을 계속하는 교사도 있다.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냉철하지 못한 보수는 자신의 교육비 때문에 더욱 가벼워진다.

방학 동안 바쁘게 지내는 것을 그저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힘들게 배운 것들이 교사의 장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학 중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면 다음 학기 중에 교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에 지장을 받게 된다. 방학 중에 충분히 쉬었다가 다음 학기에 잘 가르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방학 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음 학기의 수업이나 학생 지도와 별로 관련성이 없을 때에는

<전남대 교수>

일기 쓸 '거리' 없다고 '일' 만들어 쓴 대서야

아이들에게 일기 쓰라고 하면 가끔 "엄마, 쓸 말이 없어요"라고 호소한다. 아이들은 무작정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 중요한 사례가 있어야만 일기의 소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기 쓰기와 작문에 대한 교육이 잘못됐음을 의미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별일 없이 4, 5교시 수업을 마치고 특별한 과정없이 곧바로 집에 돌아온다. 아이로 써는 정말 일기 쓸 '거리'가 없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거리'가 있어야만 일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물을 보면서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풀섶의 풀 꽃을 봤는데 비가 온 뒤여서 유난히

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바쁜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거 어렵다. 우리는 아이들을 빼침없이 지도할 충분한 여력과 시간이 있는 교사들에게 성공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교사는 개개 학생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이 듦다. 우리의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성껏 가르치는 일은 결국 시간을 쓰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의 잠재 가능성을 파악하고, 우리 아이들의 변화 발전에 관심을 쏟고, 우리 아이들의 성취와 진로를 판단하는 일에는 차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여유를 갖고 학생들을 모두 사랑하고 지도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전남대 교수>

과랑에 보였다던가, 지붕에 앉은 새를 보면 언젠가 책에서 봤던 그림과 비슷해서 집에 돌아와 다시 책이나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었다는 식으로 느끼고 이해하는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사건 위주가 아닌, 그야말로 머리 속에 잠재돼 있는 생각, 관념, 의식을 끄집어내는 일이다. 심지어 일기 쓸 '거리'가 없자 없는 일까지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 편지를 써보라고 해도 '부모님께, 안녕하세요?'라고 두 줄만 달랑 쓰고 막는 애들이 한 학급 25명 중 4분의 1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의 글쓰기 교육, 뭔가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김덕용·광주시 북구 오룡동

외국인 100만명 시대… 베타주의 사라져야

길거리에서 흔하게 만나는 사람이 외국인들이다. 현재 국내 외국인 100만명 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인종차별과 폐쇄적인 베타주의의 가진 사람들이 적잖다.

얼마전 인터넷 메일에 스팸으로 분류된 이메일 한통을 보고는 놀랐다. 메일에는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각종 범죄 사건 등을 모두 열거한 뒤 '외국인을 전부 한국땅에서 추방해야 범죄가 없어진다'는 내용이었다. 입장은 거꾸로 놓고 볼 때 종이 난사사건이 일어난 미국에서 한 국민은 위험하니 전부 추방해야 한다고 주

장하는 꼴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 사건을 한국인 전체로 확산시키지 않는 냉정심과 시민정신을 보여줬다.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창에 외국인, 추방, 범죄 등의 단어를 치면 외국인 혐오 특히 동남아시아인 추방 등을 주장하는 사이트들이 적잖게 떠오른다. 외국인 추방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차별이나 혐오감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는는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안된다.

이제 외국인을 무작정 배척하는 천박한 사고방식은 사라져야 한다.

<이수연·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시설

소 사육농가 '사중고' 축산기반 무너진다

국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허덕이

고 있다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한우 쇠고기가 팔리지 않고 산지 소값이 폭락한데다 사료값마저 지난해보다 33%까지 치솟아 소 사육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차치 한우 생산기반이 무너지지 않으면 걱정이다.

소값 하락폭은 매우 가파르다. 지난 5월에 비해 두달만에 600kg 암소는 38만 4천원(8.6%), 수소는 36만 8천원(9.6%) 떨어졌다. 축산농가들이 소 사육을 포기하면서 암송아지 값 하락폭은 26만 6천원(15.7%)에 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되면 어디까지 주

락할지 짐작하기 어렵다.

한우 소비도 급감하고 있다. 광주·전남 16개 도축장에서 지난 6월 도축된 한우는 4월보다 27% 감소했다. 가격에서 경쟁을 할 수 없다 보니 국산 쇠고기가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수입산 쇠고기의 국산 둔갑도 한우 소

성장을 4.8% 저성장·고물가 고착되나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밀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8%를 기록했다. 당초 전망치 5%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하향 곡선을 그린 것은 민간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전기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1.6%, 2분기 0.9%, 3분기 1.3%, 4분기 0.8%에서 1분기 0.4%로 둔화되었다. 더니 2분기에는 마이너스 0.1%를 기록, 지난 2004년 2분기 이후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다.

6월 취업자 증가 폭 3년 4개월만에 최저치였다. 고용 감소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여 내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의 투자심리도 얼어붙고 있어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성이 상당히 높다

는 분석까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5.6%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3%대로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경제의 앞날이 걱정이다.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고통은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서민들은 고물가에 대출금리까지 치솟아 빚에 허덕이며 지갑을 열 업무조차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치솟고 있는 물가로부터 잡아야 한다. 물가가 안정돼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 급등 등 외부 요인이 크지만 그동안 물가보다는 성장에 치중해온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無等鼓

인간은 오래 전부터 대기 흐름이나 자연현상 등을 활용해 날씨를 예측해왔다.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태양에 해부리가 생기면 비가 내린다'는 기록을 점토판에 남겼고, 그리스인들은 평균 날씨를 석판에 새긴 달력을 만들었다고 한다. 고대 동양에서도 천체의 움직임에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회군의 정당성으로 제시했다.

정확한 날씨 예측은 전쟁의 승패나 왕조의 흐름을 좌우했다.

다.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전에서 동남풍을 불게

해 건곤일작의 대승부

를 승리로 이끈 것이

나,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러시아의 혹한을

무시하고 침공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다.

것이 대표적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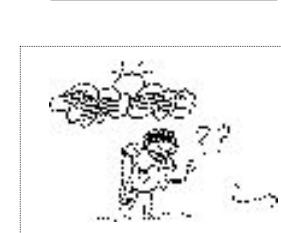
<엘니뇨·역사와 기상학>

후의 '총돌'의 저자인 로스코퍼 존스턴은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의 멸망을 이 상기후 현상인 엘니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두 왕조 말기 발생한 엘니뇨로 인한 가뭄과 대기근이 왕조의 멸망을 불렀다는 것이다. 그는 1812년과 1941년에 각각 러시아 원정에 나섰던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폭설과 혹한에 갇혀 참

가국민들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 오죽 했으면 '해외전문가 영입' 발언까지 나왔을까.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기상관측이 시작된 것은 1904년. 목포 등 전국 5곳에 일본의 기상관측소가 만들어지면서부터다. 100여년 남짓한 기상 역사에서 최악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오주승 사회부 기자

날씨 오보



인간은 오래 전부터 대기 흐름이나 자연현상 등을 활용해 날씨를 예측해왔다.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태양에 해부리가 생기면 비가 내린다'는 기록을 점토판에 남겼고, 그리스인들은 평균 날씨를 석판에 새긴 달력을 만들었다고 한다. 고대 동양에서도 천체의 움직임에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회군의 정당성으로 제시했다. 이는 경제학의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성이 상당히 높다.